



# 백지훈 “日격파 우리에게 맡겨라” 박주영

2004년 2월21일 오사카 나가이 스타디움. 아테네올림픽 아시아 최종예선을 앞두고 있던 한국 올림픽축구대표팀이 숙적 일본에 어이없는 패배를 당했다. 시종 무기력한 플레이로 끌려다니다 후반 마쓰이, 모리사키에게 연속골을 내주고 0-2로 무릎을 꿇었다. 올림픽대표팀은 그해 7월 서울로 일본을 불러들여 설욕을 노렸지만 득점 없이 비기고 말았다.

올림픽팀 뿐만 아니다. 지난 해 8월 대구에서 열린 동아시아 축구선수권대회. 당시 본프레레 감독이 이끌던 대표팀은 일본에 0-1로 속절없이 패했다.

다시 1년여가 지난 이달 9일에도 인도 콜카타. 아시아청소년선수권대회 3연패를 노리던 19세이하(U-19) 한국 청소년대표팀은 일본을 시종 압도하고도 연장 승부 끝에 2-2로 비긴 뒤 승부차기에서 분패를 당해 결승행이 좌절됐다.

2002년 한·일월드컵은 물론이고 2006 독일월드컵에서도 한국 축구는 일본보다 선전했고 성적도 좋았다. 그러나 최근 각급 축구대표팀의 한·일전 성적표는 모두 일본에 열세다. 성인대표팀,

## 올림픽축구 대표팀 오늘 한·일전 첫 지휘봉 홍명보 코치 전략 관심

올림픽팀, 청소년팀이 약속이나 한 듯 1무1패다. 성인대표팀은 38승18무12패, 올림픽팀은 4승2무3패, 청소년팀은 23승7무4패로 우위를 점하고 있지만 작년 1월 카타르대회에서 청소년팀이 일본을 3-0으로 이긴 이후엔 승리의 기억이 없다.

홍명보 코치가 임시 사령탑으로 지휘봉을 잡는 21세 이하(U-21) 올림픽대표팀은 14일 오후 8시 창원종합운동장에서 일본과 물러설 수 없는 한 판 대결을 벌인다. 비록 친선경기지만 한국으로서 물러설 수 없는 경기이다.

아시안컵 예선 최종전을 치르러 테헤란 원정길에 오르는 판 매 어번 감독도 한·일전의 중요성을 감안해 아시안게임 대표 가운데

박주영(서울), 백지훈(수원), 오장은(대구), 정성룡(포항) 등 4명을 긴급 수혈했다.

일본 격파의 선봉에는 박주영이 나설 것으로 보인다. 박주영은 청소년대표 시절 일본에 유난히 강했다. 2004년 2월 중국 후베이성에서 열린 스타스컵에서 결승골을 뽑았고 그해 아시아선수권대회 준결승, 이듬해 카타르대회 결승 등 일본전에서 3경기 연속 득점포를 터뜨렸다.

박주영은 지난 11일 K-리그 플레이오프 성남 일화전에서 후반 교체 멤버로 뛰었지만 서울 간격이 있기 때문에 출격이 가능할 전망이다.

다른 선수들의 결전 의지도 강하다. 이번 한·일전에서 처음 지휘봉을 잡는 홍명보 코치의 전략이 어떤 형태로 펼쳐질지 관심이 쏠린다.

홍 코치는 비록 임시 사령탑이지만 나름대로 경기 중 임기응변 전략으로 감독으로서 시험 무대에 오르게 된다.

소리마치 아사루 감독이 이끄는 일본은 12일 인규에 필승을 다짐하며 훈련하고 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우승, 바로 이 맛이야! 북한선수들이 13일 인도에서 열린 아시아청소년 축구대회 결승에서 일본과 승부차기 끝에 승리를 거두고 환호하고 있다. /연남수

# 청소년 축구 ‘北風’

## 北, 日 꺾고 ‘아시아 U-19’ 30년만에 우승 여자 세계선수권대회 우승이여 잇단 돌풍

### 한국, 요르단 2-0으로 누르고 3위

북한 19세 이하 청소년대표팀이 승부차기 끝에 일본을 꺾고 30년 만에 아시아청소년(U-19)축구선수권대회 우승을 차지했다. 조동현 감독이 이끄는 한국은 요르단을 꺾고 3위에 올랐다.

북한은 13일 오전(이하 한국시간) 인도 콜카타 솔트레이크 스타디움에서 끝난 일본과 대회 결승에서 연장전까지 1-1로 비긴 뒤 승부차기에서 5-3으로 승리,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이로써 북한은 1976년 대회에서 이란과 공동 우승을 차지한 뒤 30년 만에 대회 두 번째 우승을 안았다.

지난 9월 20세 이하 세계여자청소년선수권대회 우승과 17세 이하 아시아청소년선수권대회 준우승을 차지했던 북한 축구는 또 다시 국제 무대 정상에 오르며 저력을 과시했다.

이번 대회에서 준우승만 다섯 차례에 그쳤던 일본은 또 다시 첫 우승 기회를 날렸다. 북한은 전반 3분 상대 미드필드 중앙에서 리침영이 기습적으로 날린 중거리슛이 그대로 골문으로 빨려 들어가 기선을 제압했지만 전반 34분 가시와기 요스케에게 동점골을 내렸다.

이후 일진일퇴의 공방을 이어간 두 팀은

몇 차례 결정적 득점 찬스를 골키퍼 선방 등으로 무산시키며 연장전까지 승패를 가리지 못하고 결국 승부차기로 들어갔다.

승부차기에서 먼저 찬 북한은 다섯 명의 키커가 모두 착실하게 득점에 성공, 첫번째 키커가 실축한 일본을 5-3으로 따돌렸다.

준결승에서 일본에 승부차기 끝에 패해 대회 3회 연속 및 통산 12번째 우승에 실패한 한국은 앞서 열린 대회 3~4위전에서 후반 5분 심영성(제주)의 선제 결승골과 31분 이침영(서울)의 추가골로 요르단을 2-0으로 꺾었다.

심영성은 이번 대회 5호 골로 이날 골이 없었던 동료 신영록(수원)과 북한 주장 김금일(이상 4골) 등을 제치고 득점왕에 올랐다. 한국으로서는 지난 2004년 박주영(6골)에 이어 2회 연속 득점왕 배출이다.

한국은 대회 개막경기였던 조별리그 A조 1차전에서 3-0으로 완파했던 요르단을 맞아 시종 경기를 지배했다. 하지만 일본과 준결승에서 승부차기까지 가며 체력 소모가 컸던 탓인지 마무리에서 집중력 부족을 드러내며 쉽게 골문을 열지 못했다.

오려려 역습을 허용, 위기 상황을 맞기도 하다 결국 후반 5분 승부를 갈랐다. 골키퍼 김진현(동국대)의 골킥을 아크 정면에 있던 신영록이 헤딩으로 떨어뜨려 주자 심영성이 페널티지역 내 오른쪽으로 파고들어 오른발 슈팅으로 골그물을 출렁였다.

이침영은 후반 31분 김민균(중대부고)이 상대 오른쪽에서 올려준 크로스를 문전으로 쇄도하며 오른발 슛으로 문틀을 연결, 패기 골을 꽂아 넣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 “우즈와 함께 찍힌 사진 합성인줄 알았다”

## 귀국 양용은 “아직도 우승 실감 안나”

“귀국길에 나와 타이거 우즈가 찍힌 신문 사진을 보았는데 합성 사진인 줄 알았어요”

유럽프로골프(EPGA) 투어 HSBC 챔피언스에서 우승컵을 안고 13일 인천 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한 양용은(34·게이지디자인)은 아직도 우승이 실감나지 않는다고 했지만 고생 끝에 얻은 영광이 있었기에 여유있는 표정을 지었다.

양용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번 대회는 놀러 간다고 생각하고 갔는데 뜻밖에 우승을 차지했다”며 “시상식 때 우즈 옆에 앉았는데 매일 우승하던 선수라(2등했다고) 축하한다는 말도 못하겠다고 했더니 우즈가 웃으며 나한테 정말 잘했다고 해 줬다”고 말했다.

16일 일본에서 개막하는 단풍퍼닉스 대회에서도 우즈와 맞붙게 되는 양용은 “다시 경기를 한다면 이길 자신이 없다”며 너스레를 떨면서도 “골프는 변수가 많은 운동이기 때문에 누가 우승한다고 장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번 대회 우승으로 유럽 투어 카드를 따냈지만 양용은은 “내 가장 큰 목표는 PGA 투어에서 1년이라도 뛰는 것이다. 이달말 시작하는 켈리파이널스에서 PGA 투어 출전권을 꼭 따내겠다”는 각



양용은이 13일 귀국, 꽃다발을 들고 환하게 웃고 있다.

오를 밝혔다.

시종 농담을 섞어가며 취재진을 웃기기도 했지만 함께 고생했던 가족들에게 한마디 해달라는 요구에 양용은은 “아내에게 10년만 기다려 달라고 했는데..”라고 말하고 복이 메어 말끝을 잊지 못했다.

양용은은 13일 가족들과 경기도 용인의 집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낸 뒤 14일 오전 단풍퍼닉스 대회가 열리는 일본으로 떠났다.

# 오초아 시즌 6승...올 MVP 확정

## LPGA 미첼 컴퍼니 우승 흥진주 16위...성공 데뷔

‘멕시코의 박세리’ 로레나 오초아(사진)가 시즌 6번째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리며 미국 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2006년 ‘올해의 선수’ 수상을 확정했다.

오초아는 13일(한국시간) 미국 앨라배마주 모빌의 로버트 트리트 존스 골프장 마그놀리아 그로브 코스(파72·6천253야드)에서 열린 미첼 컴퍼니 토너먼트 오브 챔피언스 최종 라운드에서 7언더파 65타를 때려 4라운드 합계 21언더파 267타로 정상에 올랐다.

이로써 올해 6승을 올린 오초아는 캐리 웹(호주), 안니카 소렌스탐(스웨덴)과 시즌 내내 치열하게 벌여왔던 ‘올해의 선수’ 경쟁을 승리로 마무리했다.

2003년 신인왕을 받으며 화려하게 데뷔했던 오초아는 투어 4년차를 맞은 올해 대학 선배이기도 한 소렌스탐의 독주를 저지하며 새로운 ‘골프여왕’으로 등장했다.

오초아는 그러나 상금왕 경쟁에서는 시즌 최종전인 ADT 챔피언스에서 웹, 소렌스탐과 최후의 대결을 벌인다.

시즌 12번째 우승 합작에 도전했던 ‘코리아 파워’는 오초아의 불꽃타에 밀려 선두 경쟁에는 뛰어들지 못했지만 김주미(22·하이



트), 장정(26·기업은행), 강수연(30·삼성전자) 등 3명이 ‘톱10’에 이름을 올렸다.

미국 무대에 처음 나선 ‘신데렐라’ 흥진주(23·이동수패션)는 이날 2오버파 74타로 부진해 공동 16위(이븐파 288타)로 데뷔전을 마무리했다.

비록 10위 이내에 들지는 못했으나 흥진주는 나름대로 성공적인 미국 무대 적응을 마쳤다는 평가. 흥진주는 이번 대회에서 페어웨이 안착률 85.7%, 그린 적중률 69.4%, 그리고 평균 드라이브샷 비거리 240.88야드로 수준급 경기력을 보였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 “겨울골프 낙원 전남으로” 관광객 몰린다

항공기와 KTX등을 이용한 골프와 관광등을 포함한 전남지역 여행상품이 동남아 등으로 빠졌던 수도권 관광객의 발길을 전남으로 되돌리고 있다.

전남도관광협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광주·전남지역 관광업체들이 수도권 관광객 유치에 내놓은 골프·관광·음식의 윈스톱 여행상품이 크게 인기를 모으고 있다.

KTX를 연계한 그린피와 카트비, 숙박비, 보험등을 포함한 1박2일 골프여행상품을 30만원대에 내놓아 수도권 지역 여행업체의 큰 관심을 받았으며 최근에는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해 항공사와 공동으로 한 골프투어 상품도 30만원대에 선보이는 등 골프 관련 상품개발이 활기를 띠고 있다. 특히 전남지역 골프장은 수도권지역에 비해 겨울철 날씨가 포근해 겨울골프 즐기기에 적합한 인기를 끌고 있다.

함평다이내스티CC는 4계절양자리 골프장으로 서해안 고속도로 인근에 위치해 수도권에서 접근성이 용이해 큰 인기를 끌고 있다. 36홀 기준 자가용을 이용할 경우 28만원, 항공 이용 38만5천원, 리무진 버스를 이용하면 33만원에 라운딩이 가능하다. 여기에는 숙박비와 클럽하우스

## 함평다이내스티CC 등 수도권서 접근 편리해 골프투어 문의 잇따라

고 있다.

함평다이내스티CC는 4계절양자리 골프장으로 서해안 고속도로 인근에 위치해 수도권에서 접근성이 용이해 큰 인기를 끌고 있다. 36홀 기준 자가용을 이용할 경우 28만원, 항공 이용 38만5천원, 리무진 버스를 이용하면 33만원에 라운딩이 가능하다. 여기에는 숙박비와 클럽하우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에서 조식이 제공된다.

이외에 나주골드레이크CC, 클럽900, 무안CC도 비슷한 가격대에서 36홀 기준 그린피와 숙박비, 클럽하우스에서 조식을 제공하고 있어 수도권 골퍼들을 유혹하고 있다.

‘남해관광’관계자는 “개인적으로 여행을 할 경우 음식, 교통편 등이 불편해 전남지역 관광객 유치가 힘들었다”며 “KTX,와 항공등을 이용하고 식사까지 제공하고 있는 골프 상품에는 수도권 관광객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전남도 관광협회 관계자는 “수도권 관광객들은 국내보다 해외여행에 대한 욕구가 많아 지방유치가 힘들었다”며 “인기가 좋은 골프관련 다양한 상품을 개발해 관광객 유치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